

『도전하는 청년, 약진하는 기업』

지역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비결을 공유합니다.

— 고용노동부 차관, 중소기업과 청년의 구인·구직 애로사항, 내년도 청년취업지원 추진 방향 등 현장의견 교류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21일(월) 14시 30분 대전에 있는 (주)나노하이테크(대전 중구 용산동)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대표·인사노무 담당자, 청년 근로자들을 만나 정부의 청년지원제도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현재 시행 중인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와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고용노동부> 차관, 청년고용정책관, 대전고용센터소장, 청년보좌역 등
<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대표·인사노무 담당자 6명, 청년근로자 6명

☑ 현장 활용사례

✓ (주식회사 아로팻)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 ▲ (활용) ①인근 사업장 대비 초봉 수준 높임, ②설비 리모델링(라인자동화), 로봇설비 5대 도입<1억원/로봇 1대>, ③4.5일 근무제와 같은 MZ 근로자 선호 복지제도 도입 등
- ▲ (효과) ①초과근무수당 없이도 임금 인상 효과 → 야근 감소, ②근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구인난 해소, ③생산성 향상(연 10% 매출 성장)

✓ (주식회사 켄백스앤카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

- ▲ (활용) 지역청년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인 “인재육성 로드맵” 수립에 반영
- ▲ (효과) ①맞춤형 실무경험 제공(참여자 100% 수료), ②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재 발굴

김민석 차관은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을 모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을 신설하고,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 경향으로 수요가 높아진 일경험 기회를 5만 8천명으로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청년지원제도 활용 참여기업 및 청년 의견 소개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책임자	과 장	이영진 (044-202-7432)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황현두 (044-202-7441) 오세린 (044-202-7448)



참고1

간담회 개요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경력형성·노동시장 안착 지원을 위한
지역기업·청년과의 소통의 자리 마련

- 현장 기업·청년 애로사항 청취, '25년 도약장려금·일경험사업 개편 방향
및 신설사업(ATS 등) 설명

□ (일시·장소) '24.10.21(월) 14:30~, (주)나노하이테크*(대전 유성구 용산동)

* 측량기구 제조업(근로자수 56명)

□ 참석자(총 16명)

- (고용노동부) 차관, 청년고용정책관, 대전고용센터소장 등
- (기업) 충청지역 중소기업 6개사 대표 또는 임원
- (청년) 해당 기업 청년 6명

□ 주요 내용

- (소통 간담회) 기업과 청년지원 제도 활용 우수사례 공유, '25년 청년
지원사업 안내,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세부 계획(안)

※ 인사말씀까지 공개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간담회	14:30~14:35(5')	· 차관 인사말씀	(주)나노하이테크 회의장
	14:35~15:25(50')	· 참여기업 및 청년과의 대화	
	15:25~15:30(5')	· 단체사진 촬영, 종료	

주식회사 나노하이테크

“청년지원제도 덕분에 우리 회사도 많은 복지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청년근로자의 퇴사율이 내려가고 생산성도 올라가는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기업현황: (업종)제조업<측량기구>, (근로자수) 56명, (위치) 대전
- 지원제도: 도약장려금 총 12명
(22년 1명) (23년 3명) (24.9월 8명)
- 참여 전 상황 : 신기술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충원과 그에 따른 임금상승의 복합적인 어려움 → **전문인력 및 청년인재의 안정적 근속을 위해 복지확대의 필요성 체감**
- 도약장려금 활용 : 기존 복지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복지혁신” 추진
 - 신입직원 등 모든 근로자 연말 월임금 100% 상여금 지급
 - 대학교(원) 진학 시 등록금(자부담금) 100% 지원 등
- 효과
 -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현재 도약장려금 참여청년 12명 모두 근무중)
 - 사업참여 전 채용이력과 비교하였을 때, **고졸인력 약 2배 이상 채용**

☑ 현장 목소리

- ✓ (대표) 중소기업과 구직청년 간의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청년 구직자가 선호하는 급여(상여금) 상승, 경력개발(등록금 지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을 도약장려금을 통해 지원함
- ✓ (경영지원실 이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용도의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어**, 청년인재 근속을 위해 “복지부분”에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였고, 이에 장기근속의 효과가 나타남
- ✓ (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 **고졸학력 청년채용을 자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덕분에** 취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회사복지제도를 통한 지원으로 경력개발을 준비할 수 있음

주식회사 아로펫

“비수도권이라 사람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임금을 올리고 로봇설비를 도입하여
4.5일제 운영 등 워라밸로 지역청년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 기업현황: (업종)제조업<고양이 모래>, (근로자수)45명, (위치)음성군
* '24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수사례 기업 선정
- 지원제도: 도약장려금 총 13명
(22년 -명) (23년 6명) (24.9월 7명)
- 참여 전 상황 : 수도권이 아닌 지방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로서 청년
구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구인의 유인이 될 최신설비 및 복지제도
도입이 필요하여 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청함
- 활용 현황
 - 초봉 인상
 - 설비 리모델링(라인자동화), 로봇설비 5대 도입(1억원/로봇1대)
 - 4.5일제 도입
 - 무제한 간식제공
- 효과
 - 야근 감소
 - 초과근무 수당 없이도 월급 인상(경쟁업체 대비 높은 임금)
 - 구인난 해소, 근속기간
 - 생산성 향상(연 10% 매출 성장)

☒ 현장 목소리

- ✓ (부대표) 도약장려금 통해 ①인근 사업장 대비 초봉 수준을 올리고, ②최신
설비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 어려움을 줄이고, ③4.5일제와 같이 MZ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 산업단지 내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인 청년구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음

주식회사 켄백스앤카엘

“스펙 vs 일경험, 우리 회사는 스펙 보다 **일경험을 선호해**”

- 기업현황: (업종)제조업<반도체 필터>, (근로자수)183명, (위치)대전
- 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5명)
 - * 인턴형(8주) 프로그램 운영
- 참여 전 상황 : **수준 높은 청년들이 연고지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역청년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인재육성 로드맵” 계획함
- 활용 현황 : (주)켄백스앤카엘만의 “**인재육성 로드맵**” 에 사업 활용
 - 맞춤형 실무경험 제공 → 100% 수료 예정
 -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재 발굴**
- 효 과
 -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청년을 발굴함**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한 인턴 참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한 취업애로청년으로 채용

☒ 현장 목소리

- ✓ (총무팀 차장) 지역 청년들이 본인의 **연고지에서 성장**하도록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을 활용하여 “인재육성로드맵”을 운영함. ①미래내일일경험 참여자들이 **실무를 체험**하고, ②수료자들이 우리기업 혹은 대전지역 내 우수기업에 채용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연계하여 **수료자 중심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함

참고3

청년 의견(도약장려금, 일경험,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

(이○○, 26살) (주)두시텍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단절 청년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참여계기: 고등학교 졸업 후 서비스업에 근무 중,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미래융합교육원(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소프트웨어교육을 받고, 해당사업 참여기업인 (주)두시텍과 연결되어 취업함
- 구직과정 중 어려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교육과정(6개월) 중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참여수당을 통해 해결함
- 도약장려금에 대한 평가: **(취업 전)**기업이 **경력자를 원하기에** 직업훈련만으로 **취업이 될지 두려움**이 있었음 → **(취업 후)**경력단절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는 점**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에 만족함

미래 내일 일경험 참여자

(박△△, 26살) (주)점백스앤카멜 총무팀

“**일경험 사업은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다**, 가능하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장기 근속을 하고 싶다”

- 참여계기: 나의 적성에 맞는 직무관련 공부(스펙쌓기)를 하다가 취업 포털사이트에서 일경험 사업 알게됨
 - 회사에 대한 인식: 현재 직장이 중소기업이지만 ①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②회사의 발전 가능성 높음 → 가능하다면 장기근속을 하고 싶다. ⇒ 중소기업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 * 과거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2번 근무 경험 있으나 현재 일경험이 더 좋음
- 일경험사업에 대한 평가: 요즘 '공채의 종말이다'라는 말이 있듯 **경력직 채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해 보는 것을 추천**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참여자

(박□□, 22살) (주)젬백스앤카엘 3D도면설계

“빈일자리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

- 참여계기: 취업이전 수료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기관 사후관리를 통해 제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되는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을 안내받아 총 200만원을 지원받음(3·6개월 각 100만원, 총 200만원)
→ 경력개발 등 미래를 위한 준비로 아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음
- 구직과정 중 어려움: 구인공고로는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직자 입장에서 맞춤형 준비가 어렵다고 생각됨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에 대한 평가: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다소 기피할 수 있는 일자리(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기업-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음

참고4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2025년 II유형 신설)

- ◇ 17~21년 청년채용장려금 4개 사업 ⇒ 22년부터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
- ◇ 2년 동안 11.2만개 기업에 25.8만명 청년 정규직일자리 창출 지원
- ◇ 내년('25년)부터 도약 II 유형을 신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지원 강화

- (I유형)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모든 업종
 - * (예외, 1인 이상)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25년 2유형 신설 II유형)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①<사업주>에는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②<근로자>에는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18·24개월차 각 240만원)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빈일자리업종(제조업 등)

<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내용(안) >

구분	'24년	'25년	
		I 유형	'25년 신설 II 유형
지원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지원대상청년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지원기간	2년	1년	2년
사업주지원 (청년1인당)	1,200만원 * 720만원(60만원/月) + 2년차 480만원	720만원(1년) * 720만원(60만원/月)	720만원(1년차) * 720만원(60만원/月)
청년 지원금	-	-	480만원(2년차) * 18·24개월차에 청년에게 240만원씩 직접지원
목표인원	12.5만명	5.5만명	4.5만명
예산	6,078억원	7,772억원(27.9% ↑)	

개편
⇒

참고5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2025년 확대)

◇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채용 경향이 변화함에 따라 직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24년 4.8만명 → ’25년 정부안 5.8만명, +1.0만명)

□ 수시·경력직 중심 채용경향 변화에 따라 직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4가지 유형)

< 유형별 수행방식 등 개요 >

유형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기업탐방형
기간	2~3개월 + 사전교육(40시간 이상)	2개월 내외 + 사전교육(40시간 이상)	6개월 이내	5일 내외
수행 방식	기업 현장에서 직접 과업 수행 + 멘토 프로그램 운영	기업이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기업이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자율 수행	기업 방문, 직무체험, CEO 및 현직자 대화
사전 교육	직업기초능력 + 직무교육 (40시간 이상)	직업기초능력 + 직무교육 (40시간 이상)	프로그램별 상이	직업기초능력 교육(OT)
지원 규모	1.9만명	0.6만명	0.8만명	1.5만명

□ 유형별 지원내용

< 유형별 수행방식 등 개요 >

유형	운영기관	참여기업	청년
인턴형	60만원/인	▶기업: 5만원/주 ▶멘토수당: 3.75만원/주	▶ 교육수당: 15만원/월 ▶ 참여수당: 35만원/주 ▶ 체류지원비: 5만원/주
프로젝트형	60만원/인	▶기업: 5만원/월 ▶멘토수당: 15만원/월	▶ 교육수당: 15만원/월 ▶ 개인수당: 30만원/월 ▶ 팀수당: 120만원/월
ESG지원형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대기업 50% 매칭)		
기업탐방형	14만원/일	3만원/인	-

* 사전직무교육기관: 40시간 이상(1인당/1시간/1만원)

참고6

중소기업 ATS(채용관리솔루션) 지원사업(2025년 신규)

◇ '25년 신규사업, 중소기업의 인사업무 전문화·효율화를 위해 ATS 활용 지원

◇ 복잡한 채용업무는 줄이고, 쌍방향 소통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구직 관련 긍정적 경험 형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배경) 구직자 친화적 공개채용 확산 및 채용업무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ATS 활용 지원금 지급

* ATS(Applicant Tracking System): AI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채용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채용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

* 주요기능: 지원서 관리, 이력서 스크리닝, 채용일정 관리·안내, 평가 보고서 생성 등

□ (지원내용) 검증된 ATS를 구입·구독한 서비스 수요기업이 지원 한도 내에서 솔루션을 자유로이 활용 가능

○ 서비스 수요기업이 사업 누리집을 통해 선정된 서비스 제공기업*에 서비스 이용 신청, 지원금 한도 내 ATS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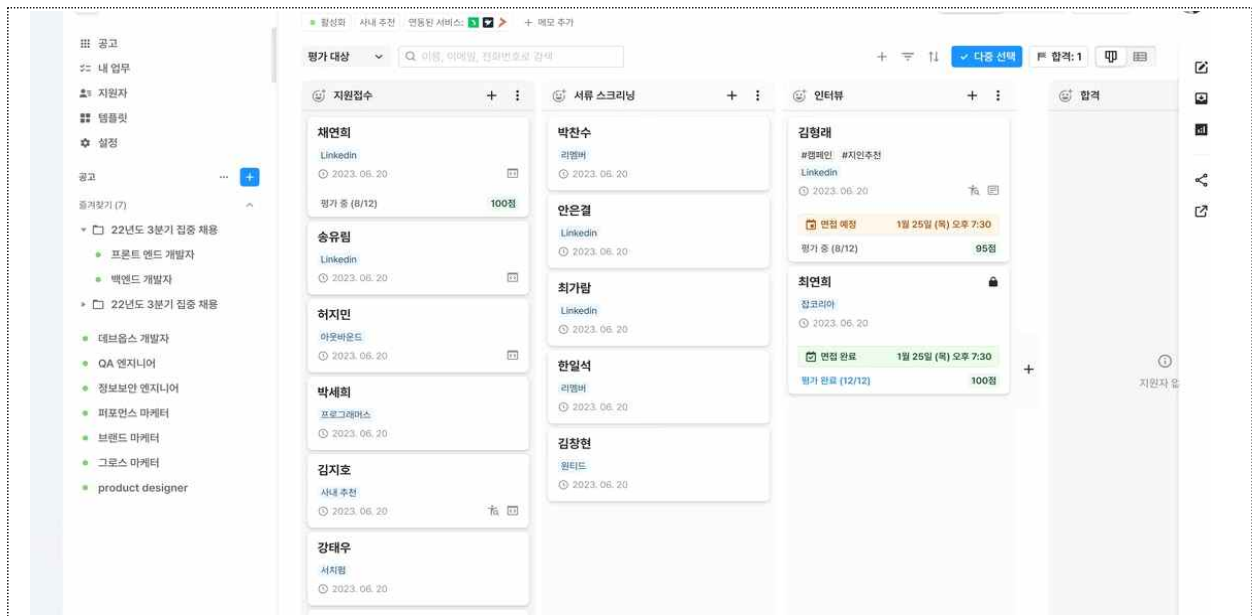
* ATS에 채용관련 법령 위반 방지 기능 및 구직자 친화적 채용방식 도입 시 선정 가능

□ '25년안: 17억원(순증)

○ (지원규모) <물량> 기업 4,000개소, <예산> 17억원

* 4,000개소×0.5백만원×0.8(자부담 0.2)+운영비 100백만원

< ATS(채용관리솔루션) 화면 (예시*) >



* (그림 인용)<아이티데일리(IT Daily), '24. 9.30> 기획특집, 보편화된 수시채용 ...떠오르는 ATS 솔루션